경북신문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시내버스 방송 통해 학교·가정폭력 예방 홍보

서인교 기자 sing4302@hanmail.net 입력 | 수정 2022.05.24 15:00

정류장 승·하차시 학교·가정폭력 예방 홍보 방송

신고, 우리 주변의 고통 받는 사람 도와주는 길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현판식. 사진제공=경북경찰청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영천, 칠곡 등 지역 시내버스 방송을 통해 학교·가정폭력 예방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학교·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시군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홍보방송이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버스에서 나오는 학교폭력 홍보방송은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더 이상 고통 받지 마세요. 117학교폭력신고센터와 학교전담경찰관이 24시간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중·고등학교 주변 정류장을 통과할 때 정류장 안내 방송 후 연이어 위 내용이 나오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홍보방송은 '폭언, 억압, 통제, 학대. 이 모든 것이 가정폭력입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아파트 단지, 주거 밀집단지 주변 정류장을 통과할 때 정류장 안내 방송 후 위 내용이 나오는 방식이다.

이번 홍보방송은 특정 정류장에서 지역별, 타깃별 홍보가 가능해 장기간 같은 노선의 버스를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광고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23개 시군 중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상주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계속해 시행한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1분기에 비해 올 1분기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신고만이 우리 주변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길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